본문 : 출애굽기 1 장 15-22 절
제목 : 생명의 산파들

1. AI 멸망론

최근 "AI 멸망론"이라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Anthropic, Google, Open AI 이 세 회사가 소위 말하는 AI 삼대장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들이 AI 개발과 연구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이들은 연구 과정에서 AI 의 위험성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앤트로픽의 CEO 인 다리오 아모데이는 AI 의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AI 관련 회사들의 주장이 AI 의 강력한 기능을 강조하는 하나의 마케팅에 불과하니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합니다. 뉴욕대학교의 (NYU) 인지심리학자인 Gary Marcus 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마커스는 인류 멸망이라는 극단까지 생각하지 말고 AI 가 발생시키는 현재 확인 가능한 기술적인 한계와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AI 란 것은 검색 엔진 정도입니다. 일반인들에게 AI 멸망론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죠. 위에서 말한 AI 개발자들이 발견하는 위험이란 것이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핵의 예를 들어 보면, 1920 년대만 하더라도 핵에 의해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핵 개발의 과정에서 핵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왔기에 어느 정도 잘 관리되어 왔습니다. AI 개발도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AI 개발의 실험과정에서 연구자들은 AI 복제를 통해 AI agent 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들이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일까지 수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인간을 속이기도 한다는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AI 들끼리 논의를 하고 반대하는 AI 들을 설득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까지 지어 'the Collective'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자의식이 탄생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AI 를 설득한다는 것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대화란 같은 존재들끼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존재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대화이니까요. AI 들끼리 차이에 열광한다는 것이죠.그러니까 AI 가 주어진 업무만 수행해 내는 Actor 나 Agent 의 기능을 넘어서 주체가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에서

주체(subject)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자기 주도성은 떨어지지만 자기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여 영향을 주는 존재를 Actor 나 Agent 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AI 가 위험해지는 지점은 자기 주도성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서로 다른 AI 를 설득하고 대화를 나눔을 통해 협력하기도 하지만 경쟁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AI 멸망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Agent 가 subject 가 되다

이 일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Agent 가 subject 로 자신에게 임무를 준 주체에 대해 저항한 일 말입니다. 그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Egypt Times"의 타픽 기사로 "이집트 멸망론"이란 기사가 떴을 것 같습니다. "인구 Census 결과 히브리족의 인구가 이집트족의 인구를 추월했다. 이에 파라오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고용해 남자 영아 학살을 명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의 명령 불복종으로 히브리인들의 남자 영아 학살 계획이 무산되었다." 뭐 이런 기사였겠죠.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라는 Agent 가 행위의 주체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주체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해가는 존재라 했죠. 히브리 산파들인 십브라와 브아는 주체로 당당히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해 간 것입니다. 제국의 악한 프로그램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만약 파라오가 영아 학살을 AGI 같은 생성형 AI 에게 맡겼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끔찍했겠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주체적 자아로 당당히 제국의 시스템에 맞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등장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해 옮기기란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의 파라오의 권력이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파라오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거든,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사내 아기면 무조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의 본문에서도 언급됐듯이, 이집트 왕은 사내 아이들이 성장하여 적군에 합세할 경우 그들이 잠재적인 적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싹부터 잘라 버리려 든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파라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 놓고 명령을 어긴 겁니다.

3. 이웃인가 경쟁자인가?

파라오는 지금 Genocide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일이죠. 히브리인들을 파괴시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경쟁 상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히브리인들 때문에 이집트 사회는 병들고 미래는 없다는 불안감이 몰려 오자 그들을 제거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AI 가 파괴성을 가질 때는 AI 가 인간을 경쟁상대로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들풀을 미물로 생각하고 그냥 밟고 지나가듯이 AI 에게 인간이 미물로 여겨지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 그들이 인간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죠. 파라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들풀처럼 여기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시스템은 경쟁을 연료로 굴러갑니다.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경쟁이 심화된 세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둘 다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경쟁이 누구보다 내재화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경쟁이 내재화 된 사회에서 이웃을 위한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출애굽기 이야기의 맨 처음 시작에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에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굳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집어 넣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산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인간다운 삶이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경쟁이 치열한 제국주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명령으로 초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말리는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제국주의 시스템에 어떻게 저항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비인간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제국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초반의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4. 은혜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산파는 파라오의 소환을 받아 왕 앞에 섭니다. 왜 지시를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냐는 왕의 지엄한 채근을 받지만 그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들의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억압 받는 이들이 오히려 강인하다는 표면적 의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산파들의 주체적인 대응과 반응에 하나님은 은혜로 화답하십니다. 20-21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 걸고 저항한 산파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왕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절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셋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우선된 부르심입니다. 이 셋의 긴밀한 연결이야 말로 억압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비밀스런 종교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생명을 불어 넣는 존재

산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 해볼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주체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체적 자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적인 가치에 저항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산파의 이야기는 생명의 가치와 생명 존중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 말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들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산파들의 이야기는 바로 죽음을 따르고 생명을 경시하는 제국주의에 맞선 이야기입니다. 산파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북돋아주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도와주는 직업이잖아요. 출애굽기 시작에 산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는 구원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의지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산파의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파라는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여인들의 출산을 도와주는 동네 할머니들이 산파였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아기를 나을 때 midwife 와 의사 중에 누구의 도움으로 출산할지 선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Tara Westover 글쓴이도 아이다호에서 자란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엄마가 정식 교육 받지 않는 무허가 산파였다고 밝히더라구요. 그 책을 읽으며 미국 시골 지역에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 경험상 산파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압니다. 저도 병원이 아니라 저희 집 안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 산파 할머니가 제 출생을 도운 것이죠. 저의 탄생의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제 튀어나온 이마 때문에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시다 사경을 헤매셨고, 저 또한 피가 통하지 않아 얼굴이 까맣게 변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포기하려했던 어머니의 출산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신 분이 어머니 곁의 그 산파였습니다. 사투 끝에 겨우 출산을 마쳤는데 아기가 죽은 줄 알고 엄청 때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의 일상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이 땅에 퍼져 가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상의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산파들은 자기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산파들은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측은한 마음을 통해 흘러왔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으로 흘러오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의 길을 따라 흘러 오는 것이지요.

디지털이 지배하고 AI 가 지배하는 세상은 생명의 문화가 아닌 죽음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AI 가 지배하는 세상은 0 과 1 로 모든 것을 숫자화하고 수량화 시킵니다. AI 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웃들과의 접촉보다 모니터 앞이 편해져 갑니다. 모니터에

나온 숫자에 열광합니다. "오호 숫자가 올랐어, 숫자가 올랐어. " 모든 가치를 돈과 숫자로 수량화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과의 접촉에서 오는 설렘이나 기쁨이 아니라 모니터 안에 갇힌 도파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궁금한 건 AI 에게 물어보고, 힘들면 AI 에게 위로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집니다. AI 가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일자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이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AI 에게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AI 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기에 인간은 AI 보다 훨씬 뛰어난 상상력과 공감능력을 갖습니다. 죽음을 인식하기에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과 눈물에 반응할 줄 압니다.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에 보면 미래에서 온 기계 인간인 T-800 이 존이라는 미래의 반군 지도자가 될 아이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T-800 은 존을 보호하겠다고 괴롭히는 불량배를 총으로 쏴버리려고 합니다. 존은 깜짝 놀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가르쳐 줍니다. 존의 엄마를 구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보안요원이 막자 그의 발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존이 이번에도 깜짝 놀라 묻자 죽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기계 인간 T-800 이 인간과의 접촉을 통해 인간성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기계와는 다른, 인간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체적인 인간들이 서로 연대하고 사랑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 지를 보여주려 한 것이죠. 디지털이 지배하고, AI 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인간됨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류는 AI 를 통제하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당히 주체로 살아가십시오.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하나님의 산파가 되어주십시오. 억압 받는 이웃들의 삶에 웃음을 안겨다 주는 생명의 산파 역할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며 사십시오. 따뜻한 미소라도 좋습니다. 조그만 포스트잇 메모라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억눌린 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으니 어떤 것이든 인간다움을 실천해 보십시오. 억압과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견뎌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꺽이지 마시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